

보도시점 (지 면) 1. 31.(수) 조간  
(인터넷) 1. 30.(화) 12:00

## 2023년 중소기업 수출, 1,118억달러 기록(△2.3%)

- 총 수출(△7.5%)과 비교 시 중소기업 수출(△2.3%)이 수출 감소세를 완화
-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화장품, 자동차, 자동차부품 등 6개 품목 증가
- 상위 10대 수출국가 중 미국, 멕시코, 러시아 3개국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상위 10대 수출국 외 중동·유럽연합(EU) 지역 수출도 증가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오영주)는 「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(잠정치)」을 발표했다.

### ①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 분포

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대비 2.3% 감소한 1,118억달러로, '21년 1,100억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이후 3년 연속 1,100억달러 수출실적\*을 유지하였다.

\* 중소기업 수출액(억 달러) : ('21) 1,155(+14.7%) → ('22) 1,145(△0.9%) → **(23) 1,118(△2.3%)**

'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감소 추세가 '23년 상반기로 이어졌으나, '23년 8월부터 전년대비 증가추세로 전환\*하여 하반기 수출이 반등\*\*하였으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 감소폭이 완화되었다.

\* 중소기업 수출액·증감률(억 달러, %, 분기별 월평균) : '23.1Q 91(△8.0) → 2Q 95(△3.5) → 7월 90(△5.5) → **8월 90(+0.6) → 9월 94(+1.8) → 10월 91(+2.7) → 11월 99(+10.6) → 12월 98(△1.2)**

\*\* '23년 반기 수출액 증가율(전년동기대비 %) : (상반기) △5.8, (하반기) +1.4

수출 중소기업 수는 94,635개사로 전년(92,448개사) 대비 소폭(+2.4%) 증가하였으며, 신규 수출기업수는 전년대비 6.0% 증가, 수출 중단기업은 1.9% 감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지표가 개선되었다.

## ②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·국가별 특징

### <주요 수출품목>

중소기업 수출품목 중 화장품, 자동차, 플라스틱제품, 자동차부품 등이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. 중소기업 전체 수출액 중 상위 10대 품목 집중도는 33.0%로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(57.5%)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.

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1위인 화장품(+20.2%)과 2위인 자동차(+57.4%)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, 자동차부품, 기타 기계류, 전자응용기기, 기계요소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.

【 총 수출 10대 품목 (억 달러, %) 】				【 중기(中企) 수출 10대 품목 (억 달러, %) 】					
구 분	수출액	비중	증감률	구 분	수출액	비중	증감률		
1	반도체	986	15.6	△23.7	1	화장품	54	4.8	20.2
2	자동차	709	11.2	31.1	2	자동차	49	4.4	57.4
3	석유제품	520	8.2	△17.2	3	플라스틱제품	48	4.3	△4.8
4	자동차부품	230	3.6	△1.5	4	자동차부품	45	4.0	8.1
5	합성수지	229	3.6	△18.3	5	반도체제조용장비	34	3.1	△9.2
6	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	218	3.5	20.1	6	합성수지	34	3.0	△15.3
7	철강판	207	3.3	△7.5	7	기타기계류	30	2.7	6.5
8	정밀화학원료	191	3.0	1.7	8	전자응용기기	26	2.3	6.4
9	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	187	3.0	△12.0	9	반도체	26	2.3	△9.3
10	무선통신기기	155	2.4	△10.2	10	기계요소	24	2.1	2.5
상위 10대					상위 10대				
전 체					전체				
3,634				57.5	△8.1	369			
6,324				100.0	△7.5	1,118			
					33.0				
					100.0				
					5.6				
					△2.3				

주요 수출 증가 품목의 증가요인을 분석하면, 자동차 수출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 중단 등에 따라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(315.0%), 카자흐스탄(+21.4%)의 중고차 수요가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이며, 리비아(+120.1%) 등 중동지역 중고차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.

화장품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이 감소(△14.4%)하였으나, 미국(+47.2%), 일본(+12.9%), 베트남(+28.6%)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어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액은 연간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.

자동차부품의 경우 완성차 시장 호황에 따라 미국(+7.0%), 멕시코(+18.4%), 일본(+9.9%) 등 자동차 공장이 위치한 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되었다.

## <주요 수출국>

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순위는 중국, 미국, 베트남, 일본, 인도 순으로 집계됐으며, 미국, 러시아, 멕시코 3개국 수출액이 증가했다.

【 중소기업 수출 10대 국가 (단위 : 억달러, %) 】

구분	중국	미국	베트남	일본	인도	러시아	홍콩	대만	멕시코	인니
수출액 (억달러)	192	<b>171</b>	104	100	31.8	<b>30.9</b>	28.3	27.4	<b>26.9</b>	26.1
수출증감 (억달러)	-22.6	<b>8.5</b>	-6.3	-7.3	-0.7	<b>4.0</b>	-1.2	-7.1	<b>1.5</b>	-1.7
수출증감률 (%)	△10.5	<b>5.2</b>	△5.7	△6.8	△2.0	<b>14.7</b>	△4.2	△20.6	<b>5.9</b>	△6.0

미국의 경우 자동차부품, 화장품, 기타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 증가로 '23년 기준 전체 수출국 중 가장 많은 수출액 증가(+8.5억달러)를 기록했다. 러시아의 경우 화장품,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세를 견인했으며, 멕시코의 경우 현지 자동차 공장의 생산 확대에 의해 자동차부품의 수요가 확대돼 수출이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.

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외에도 중동(+6.6%, +3.6억달러), 유럽 연합(EU)(+4.3%, +6.9억달러)에서의 중소기업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.

### ③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

'23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액은 7.6억달러로 전년 대비 11.3% 증가했다. 국내 온라인 총 수출액 9.9억달러 중 중소기업 비중은 76.5%로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 분야를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온라인 수출 주요 품목으로는 <sup>1</sup>위 화장품(31.6%)과 아이돌 팬 상품(굿즈) 등이 포함된 <sup>3</sup>위 문구 및 완구(135.3%) 등이 강한 증가세를 보였다.

온라인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4,116개사(+8.2%)로 전년 대비 312개사가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했다.

**【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품목 (백만달러, %) ] 【 온라인 수출 상위 5대 국가 (백만달러, %) 】**

구분	'22년	'23년	증감률
화장품	242.7	319.3	31.6
의류	91.7	75.1	△18.1
문구 및 완구	23.0	54.0	135.3
컴퓨터	46.7	53.5	14.7
음향기기	68.3	42.5	△37.7
주요품목 소계	472.3	544.4	15.3
온라인수출액	682.0	759.1	11.3

구분	'22년	'23년	증감률
미국	230.7	296.2	28.4
일본	195.4	161.9	△17.2
중국	112.6	121.9	8.3
키르기스스탄	12.8	20.7	61.2
싱가포르	19.2	16.3	△15.3
주요국가 소계	570.8	617.0	8.1
온라인수출액	682.0	759.1	11.3

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2023년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의 경기침체, 고물가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,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, 수출 중소기업 개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”며,

“2023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수출 증가추세를 2024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을 총력 지원하겠다”고 계획을 밝혔다.

담당 부서	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민규 (044-204-7500)
		담당자	사무관	김태우 (044-204-7502)
			전문관	이가형 (044-204-7514)



**참고 1****'23년 연간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**

① (화장품 : 53.8억달러, +20.2%) '23년 화장품 역대 최고실적 기록, 중국의 경기침체와 자체브랜드의 공세로 對중국 수출은 감소, 미국·유럽·일본 등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對中수출 감소 상쇄

- 기초화장품(+32.1%, 비중 42.9%) 美·베트남 등 수출 증가, 메이크업용 제품류(+7.3%, 비중 6.2%) 日·美 등 수출 증가, 립스틱 제품류(+85.6%, 비중 4.0%) 美·日·中·베트남·태국·러시아·홍콩 등 전반적 수출 증가

\* 화장품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49.2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44.7 → ('23) 53.8<sup>역대 1위</sup>

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11.3(△14.4), 미국 9.3(47.2), 일본 5.9(12.9), 베트남 3.9(28.6), 러시아 3.5(38.9), 홍콩 3.0(41.4), 대만 1.3(5.4), 태국 1.3(31.2) 등

② (자동차 : 49.1억달러, +57.4%) 러시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 등 국가로 수출 상승세 지속, 對中(+634.4%) 중고차 수출이 주로 고가 중고차 위주로 증가,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의 약 80%를 처리하는 인천항의 경우 이에 힘입어 역대 최대물동량 돌파

\* 자동차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6.3 → ('22) 31.2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3) 49.1<sup>역대 1위</sup>

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키르기스스탄 9.9(315.0), 러시아 7.5(6.6), 요르단 3.8(△23.5), 카자흐스탄 3.6(21.4), 리비아 2.9(120.1), 이집트 2.5(62.6), 중국 2.2(634.4), 아랍에미리트 2.0(114.9), 아제르바이잔 1.5(100.9) 등

③ (플라스틱제품 : 47.9억달러, △4.8%) 분리막(+4.3%, 비중 8.5%, 2차 전지 소재)의 수출은 증가했으나, 필름류(△4.6%, 비중 58.3%), 용기(△7.3%, 비중 15.4%), 관·파이프(△6.5%, 비중 6.2%) 수출 감소

- 배터리 분리막: 中 이차전지 자체 공급망 구축 등에 따라 對中(△1.0%) 수출 감소, 헝가리(+12.0%)·말레이시아(+20.5%) 등 이차전지 생산시설을 갖춘 국가로 수출 증가

※ 플라스틱제품 수출단가(달러/kg) : ('22) 5.1 → ('23) 5.0 (△1.2%)

\* 플라스틱제품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53.9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2) 50.3 → ('23) 47.9

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9.0(△8.1), 미국 8.8(△7.8), 베트남 6.0(△5.4), 일본 2.9(△6.1), 헝가리 2.3(8.1), 멕시코 1.5(8.5), 러시아 1.1(15.2), 인도 1.1(2.9), 튀르키예 1.0(25.3) 등

④ (자동차부품 : 44.6억달러, +8.1%) 북미(미국 +7.0%, 캐나다 +5.3%), 멕시코(+18.4%), 우즈베키스탄(+85.4%), 일본(+9.9%) 내 자동차 생산 증가로 부품수출 상승

○ 아세안 내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확대 및 현지생산 증가로 자동차부품 수입수요가 확대, 중국(△6.0%)은 부품의 국산화 정책으로 수출 감소

\* 자동차부품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41.2 → ('22) 41.3 → ('23) 44.6  
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11.7(7.0), 멕시코 4.1(18.4), 일본 3.6(9.9), 중국 3.2(△6.0), 베트남 2.1(12.8), 러시아 1.9(20.6), 우즈베키스탄 1.7(85.4) 등

⑤ (반도체제조용장비 : 34.4억달러, △9.2%) 반도체 재고 수준이 여전히 높아 설비투자도 부진, 글로벌 반도체 기업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(+40.7%, 비중 11.0%)를 제외하고, 중국(비중 41.2%), 미국(비중 10.5%), 대만(비중 9.8%), 일본(비중 7.4%)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

\*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7.0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2) 37.9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3) 34.4<sup>역대 3위</sup>  
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14.2(△14.2), 네덜란드 3.8(40.7), 미국 3.6(△21.2), 대만 3.4(△33.1), 일본 2.5(△11.1), 싱가포르 1.7(△30.5) 등

⑥ (합성수지 : 33.5억달러, △15.3%)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산업 부진 지속, 수출 단가마저 감소 하면서 '22년 7월부터 16개월 연속 감소, 중국(비중 28.2%), 베트남(비중 18.0%)이 두 자릿수 감소하며 연간 수출 2개년 연속 감소

○ 특히 플라스틱 용기 재료인 폴리프로필렌(△15.1%)과 비닐 포장재 원료인 저밀도에틸렌(△22.5%) 감소

※ 합성수지 수출 단가(달러/kg) : ('22년) 1.88 → ('23년) 1.62 (△13.8%)

\* 합성수지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41.6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39.5 → ('23) 33.5  
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9.4(△18.4), 베트남 6.0(△19.3), 미국 1.8(△19.5), 인도 1.8(22.3), 튀르키예 1.3(△1.2), 인니 1.1(△32.3) 등

⑦ (기타기계류 : 30.1억달러, +6.5%) 미국(배터리 관련 장비↑) 수출 급증, 중소기업 수출액 30억 달러 돌파로 연간 수출액 역대 3위 기록

- \* 기타기계류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4.2 → ('22) 28.3 → ('23) 30.1<sup>역대 3위</sup>
-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8.5(106.0), 중국 6.2(△19.4), 베트남 2.8(△26.5), 일본 1.4(△7.2), 헝가리 1.3(△20.8), 멕시코 1.1(20.7) 등

⑧ (전자응용기기 : 26.2억달러, +6.4%) 미국(2차전지 관련 장비↑), 일본(의료기기↑), 러시아(영상의료기기↑), 베트남(산업용 X-ray, 카메라모듈 부품↑) 등을 비롯해 브라질(피부미용 의료기기↑), 튀르키예(금융기기↑)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4년 연속 증가와 함께 연간 수출액 역대 1위 기록

- \* 전자응용기기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4.1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24.6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3) 26.2<sup>역대 1위</sup>
-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5.5(3.6), 중국 2.5(△3.0), 일본 2.2(1.7), 러시아 1.1(18.0), 베트남 0.9(11.5), 브라질 0.9(45.1) 등

⑨ (반도체 : 26.1억달러, △9.3%)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수출액이 감소하였으나 IT 수요 회복, 가격 반등으로 반도체 시황이 개선되면서 '23년 9월부터 증가세

※ 반도체 수출단가(달러/kg) : ('22년) 373.0 → ('23년) 452.5(+21.3%)

- \* 반도체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3.3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2) 28.7 → ('23) 26.1
- 시스템반도체 15.6억달러(△7.1%), 메모리반도체 2.7억달러(△14.6%)
-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베트남 5.7(13.6), 홍콩 5.4(△24.0), 중국 5.2(△18.0), 태국 2.1(26.8), 대만 1.5(20.0), 싱가포르 1.5(△23.0) 등

⑩ (기계요소 : 23.6억달러, +2.5%) 미국(밸브·반도체 공정 설비↑)수출 증가세로 3개년 연속 연간 수출액 증가와 함께 10대 품목 진입, 차기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는 베트남(밸브↑), 인도(밸브↑)가 소폭 증가하고 멕시코(잠금장치, 베어링↑), 독일(베어링↑) 등도 크게 증가

- \* 기계요소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2.8 → ('22) 23.0 → ('23) 23.6
-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4.7(△1.3), 미국 4.7(3.8), 일본 2.6(△1.8), 베트남 1.1(0.2), 인도 1.0(1.8), 멕시코 0.8(12.4) 등

※ (철강판<sup>12위</sup> : 21.9억달러, △12.4%)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, 일본 제품의 저가 공세로 철강산업 하락세 지속, 반면 멕시코(니어쇼어링에 따른 제조업 호조로 수요↑)는 증가

\* 철강판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0.7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2) 25.0 → ('23) 21.9  
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멕시코 2.7(9.1), 태국 1.9(△13.9), 인니 1.5(△15.1), 베트남 1.5(△26.0), 중국 1.2(△11.0), 일본 1.1(△4.9) 등

※ (의약품<sup>33위</sup> : 11.4억달러, △61.0%) 엔데믹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수요 급감, 수출액 2개년 연속 감소와 함께 10대 품목에서 이탈

\* 의약품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3.2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2) 29.2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3) 11.4  
 \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베트남 1.3(△36.9), 중국 1.2(△2.2), 일본 1.1(△74.6), 미국 0.8(△78.0), 브라질 0.7(△21.8), 이탈리아 0.6(△19.7) 등

< '23년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액 (단위 : 백만달러, %) >

품목(MTI 3단위)		'21년 수출액	'22년 수출액	'23년 수출액 ↓	증가분	증가율	비중
1	화장품	4,924	4,472	5,377	905	20.2	4.8
2	자동차	2,632	3,120	4,910	1,791	57.4	4.4
3	플라스틱 제품	5,391	5,031	4,791	-240	△4.8	4.3
4	자동차부품	4,124	4,127	4,462	336	8.1	4.0
5	반도체제조용장비	3,703	3,790	3,441	-349	△9.2	3.1
6	합성수지	4,161	3,955	3,351	-604	△15.3	3.0
7	기타기계류	2,416	2,829	3,013	183	6.5	2.7
8	전자응용기기	2,406	2,463	2,621	158	6.4	2.3
9	반도체	3,331	2,874	2,608	-266	△9.3	2.3
10	기계요소	2,279	2,302	2,361	59	2.5	2.1
<b>10대 소계</b>		<b>35,366</b>	<b>34,963</b>	<b>36,935</b>	<b>1,972</b>	<b>5.6</b>	<b>33.0</b>
<b>전체 합계</b>		<b>115,480</b>	<b>114,458</b>	<b>111,843</b>	<b>-2,615</b>	<b>△2.3</b>	<b>100.0</b>



① (중국 : 192.4억달러, △10.5%) 반도체제조용장비(미중 반도체 갈등), 화장품(소비 둔화, 애국소비), 합성수지(경기침체, 중간재 자급률 상승), 플라스틱제품(중간재 자급 확대, 내수 위축으로 스마트폰 수요 감소) 등 대부분 상위 품목이 하락하며 對中 연간 수출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00억달러 밑으로 감소

\* 연도별 對중국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

'10:237 → '11:254(+7.4) → '12:237(△6.9) → '13:222(△6.0) → '14:230(+3.4) → '15:221(△4.0) → '16:225(+1.9) → '17:223(△0.6) → '18:248(+11.0) → '19:232(△6.2) → '20:227(△2.2) → '21:239(+5.1) → '22:215(△10.0) → '23:192(△10.5)

\* 對중국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38.9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215.0 → ('23) 192.4  
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제조용장비) 14.2(△14.2), (화장품) 11.3(△14.4), (합성수지) 9.4(△18.4), (플라스틱제품) 9.0(△8.1), (자동차)<sup>23위</sup> 2.2(634.4) 등

② (미국 : 171.1억달러, +5.2%) 완성차 시장 호황으로 자동차부품(중국 자동차부품 수입 감소), 운반하역기계 호조세에 더해, 기타기계류, 화장품, 전력용기기(신재생 발전설비 수요, 변압기 연한 도래로 인한 교체 수요) 등 품목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對美 연간 수출액 역대 1위 기록

\* 對미국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146.8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162.6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3) 171.1<sup>역대 1위</sup>  
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부품) 11.7(7.0), (화장품) 9.3(47.2), (플라스틱제품) 8.8(△7.8), (기타기계류) 8.5(106.0), (전력용기기)<sup>5위</sup> 6.5(56.4), (운반하역기계)<sup>9위</sup> 4.0(138.1) 등

③ (베트남 : 103.8억달러, △5.7%) 합성수지(공급 과잉), 플라스틱제품(스마트폰 수요 부진), 편직물(해외 수주 감소), 기타기계류(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) 등이 감소하였으나, 반도체(중국 대체 반도체 생산기지로 부상), 화장품(한류열풍) 등 품목에서 증가하며 감소폭 일부 상쇄

\* 對베트남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113.2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2) 110.1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3) 103.8  
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합성수지) 6.0(△19.3), (플라스틱제품) 6.0(△5.4), (반도체) 5.7(13.6), (편직물) 4.6(△10.8), (화장품)<sup>6위</sup> 3.9(28.6), (기타기계류)<sup>11위</sup> 2.8(△26.5) 등

- ④ (일본 : 100.1억달러, △6.8%) 일본 자동차 업계 호황으로 자동차 부품(증가세 전환), 화장품, 금은빛백금(금 가격 상승, 안전자산 수요) 등 품목이 상승세를 기록했지만, 최대 수출품목인 석유제품(유가하락), 플라스틱제품(스마트폰 수요 둔화), 의약품(엔데믹에 따른 위탁생산 수요 감소, 백신·진단키트 수요 감소)의 하락세로 對日 수출 감소세

\* 對일본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107.0 → ('22) 107.4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3) 100.1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석유제품) 8.1(△15.9), (화장품) 5.9(12.9),  
 (자동차부품) 3.6(9.9), (플라스틱제품) 2.9(△6.1),  
 (의약품)<sup>29위</sup> 1.1(△74.6), (금은빛백금)<sup>33위</sup> 1.0(1187.1) 등

- ⑤ (인도 : 31.8억달러, △2.0%) 합금철·선철 및 고철, 합성수지, 플라스틱제품 등 상위 품목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(자동차 부품 자국 생산 장려), 산업용전기기기, 기타기계류 수출의 감소세로 對인도 수출 소폭 하락

\* 對인도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0.1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32.4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3) 31.8<sup>역대 2위</sup>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합금철선철및고철) 1.9(9.5), (합성수지) 1.8(22.3),  
 (자동차부품) 1.2(△11.0), (플라스틱제품) 1.1(2.9),  
 (산업용전기기기)<sup>9위</sup> 0.9(△21.9), (기타기계류)<sup>10위</sup> 0.8(△33.4) 등

- ⑥ (러시아 : 30.9억달러, +14.7%) 합성수지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(중고차), 자동차부품, 화장품, 운반하역기계, 금속공작기계 품목이 증가하며 對러시아 수출 증가

\* 對러시아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7.6 → ('22) 27.0 → ('23) 30.9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) 7.5(6.6), (화장품) 3.5(38.9),  
 (자동차부품) 1.9(20.6), (운반하역기계) 1.5(87.8),  
 (합성수지)<sup>8위</sup> 0.7(△20.1), (금속공작기계)<sup>9위</sup> 0.7(112.1) 등

- ⑦ (홍콩 : 28.3억달러, △4.2%) 화장품, 패션잡화, 컴퓨터, 금은빛백금 (홍콩 경유 중국의 금 수입 증가, 금 가격 상승)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, 유선통신기기 등 품목이 두 자릿수 감소하며 연간 수출 감소

\* 對홍콩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6.8 → ('22) 29.6 → ('23) 28.3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) 5.4(△24.0), (화장품) 3.0(41.4),  
 (패션잡화) 1.8(103.0), (컴퓨터) 1.5(6.1),  
 (금은빛백금)<sup>6위</sup> 0.9(47.4), (유선통신기기)<sup>8위</sup> 0.7(△27.5) 등

⑧ (대만 : 27.4억달러, △20.6%) 반도체(4개월 연속 증가), 화장품, 패션 잡화 등이 증가하였으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제조용장비(반도체 수요 둔화, 11개월 연속 하락세), 계측제어분석기, 의약품(진단키트) 등이 감소하며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큰 감소세 기록

\* 對대만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33.1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2) 34.5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3) 27.4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반도체제조용장비) 3.4(△33.1), (반도체) 1.5(20.0), (화장품) 1.3(5.4), (패션잡화) 0.8(428.8), (계측제어분석기)<sup>6위</sup> 0.6(△40.4), (의약품)<sup>47위</sup> 0.2(△94.5) 등

⑨ (멕시코 : 26.9억달러, +5.9%) 북미 중심 니어쇼어링으로 멕시코가 글로벌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두 자릿수 증가와 철강판, 플라스틱제품, 기타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증가세를 보이며 연간 수출액 역대 1위 기록

\* 對멕시코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4.4<sup>역대 3위</sup> → ('22) 25.4<sup>역대 2위</sup> → ('23) 26.9<sup>역대 1위</sup>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자동차부품) 4.1(18.4), (철강판) 2.7(9.1), (산업용전기기기) 2.5(△14.0), (플라스틱제품) 1.5(8.5), (기타기계류)<sup>5위</sup> 1.1(20.7) 등

⑩ (인도네시아 : 26.1억달러, △6.0%) 철강판, 편직물,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의 두 자릿수 감소로 섬유 및 화학기계, 산업용전기기기, 화장품, 광학기기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對인니 수출 감소

\* 對인도네시아 수출액(억달러) : ('21) 29.4<sup>역대 1위</sup> → ('22) 27.8 → ('23) 26.1  
 \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철강판) 1.5(△15.1), (편직물) 1.5(△22.9), (합성수지) 1.1(△32.3), (섬유및화학기계) 0.8(18.1), (산업용전기기기)<sup>6위</sup> 0.7(71.6), (화장품)<sup>7위</sup> 0.6(50.4), (광학기기)<sup>16위</sup> 0.4(289.8) 등

< '23년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액 (단위 : 백만달러, %) >

국 가	'21년 수출액	'22년 수출액	'23년 수출액 ↓	증가분	증가율	비중
1 중국	23,887	21,498	19,241	-2,257	△10.5	17.2
2 미국	14,685	16,255	17,108	853	5.2	15.3
3 베트남	11,324	11,013	10,384	-629	△5.7	9.3
4 일본	10,704	10,740	10,013	-727	△6.8	9.0
5 인도	3,006	3,242	3,176	-66	△2.0	2.8
6 러시아	2,758	2,697	3,092	395	14.7	2.8
7 홍콩	3,676	2,958	2,834	-124	△4.2	2.5
8 대만	3,309	3,445	2,737	-708	△20.6	2.4
9 멕시코	2,441	2,543	2,693	150	5.9	2.4
10 인도네시아	2,939	2,780	2,613	-167	△6.0	2.3
<b>10대 소계</b>	<b>78,730</b>	<b>77,172</b>	<b>73,891</b>	<b>-3,280</b>	<b>△4.3</b>	<b>66.1</b>
<b>합계</b>	<b>115,480</b>	<b>114,458</b>	<b>111,843</b>	<b>-2,615</b>	<b>△2.3</b>	<b>100.0</b>